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출하·재고 순환/소비/물가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세 유지(12월: -15.6% → 1월: -11.8) - 1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107.3(200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1.8% 감소해 지난 달의 감소세가 완화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폭 확대(12월: 3.5 → 1월: 21.7%) - 1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부문이 10.8% 증가하고 대형마트 부문이 36.7%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1.7% 증가함 ○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대비 상승 - 2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5%, 각각 상승함 - 상품부문, 서비스부문 모두 전월대비 상승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소폭하락 - 2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한 61.8%로 남자는 73.2%, 여자는 50.9%임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소폭 상승 - 2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만5천명(0.3%) 증가한 486만명이며, 전월대비로는 4만9천명(-1.0%) 감소함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2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4.5%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는 1.0%p로 지난달보다 소폭 감소함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1조 9,97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73.9% 증가함 - 민간부문의 395.6% 증가는 신규 주택, 국제업무단지 및 재개발 주택 부문의 발주 증가를 원인으로 하고 있음 ○ 2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 - 2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과 동일한 0.7% 상승하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2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 연립주택(0.9%)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세로 전환 - 2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증가액은 365.1조원으로, 전월대비 2.3조원 증가하여 증가세로 전환됨 ○ 2월 기준 전월대비 서울의 부도업체 수 감소, 어음부도율 하락 - 2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보다 1개 감소한 66개였고,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 0.02% 보다 하락하였음 ○ 서울시 신용보증 건수 및 금액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2월중 983건, 322억 11백만 원을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64.7%, 금액은 79.7% 감소함 ○ 서울시 수출수입 높은 증가세 - 서울의 수출은 TV 등 전기전자제품과 기계류 등에 힘입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60.8%의 증가율을 기록함 - 서울의 수입은 출강재 등의 수입 증가로 인해 전년동월 대비 수입 증가율이 34.4%에 달해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생 · 산 |

2008년 1월 중 제조업부문 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 소비 증가 등으로 상승 기조를 계속 이어나감
 - 1월 중 전국의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모두 지난달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됨
 - 1월 중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로 지난달 보다 2.5%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의 호조로 11.8%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서비스업 생산은 통신업, 사업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하여 지난달에 비해 0.9%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호조로 7.7% 증가함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1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107.3(200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0.7%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인쇄 및 기록매체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은 대폭 감소, 경공업부문 소폭 증가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7.4% 감소하여 지난 달 보다 감소세가 완화됨
 - 세부업종별로 비금속광물(20.2%)은 증가하였으나 기계장비(-60.5%), 화학제품(-1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34.1%), 가죽 및 신발(-23.6%), 자동차(-19.0%)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함
 - 세부업종별로 식료품(16.6%), 종이제품(7.7%), 음료(1.2%) 등은 증가하였으나 가죽 및 신발(-23.6%), 섬유제품(-7.6%)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짐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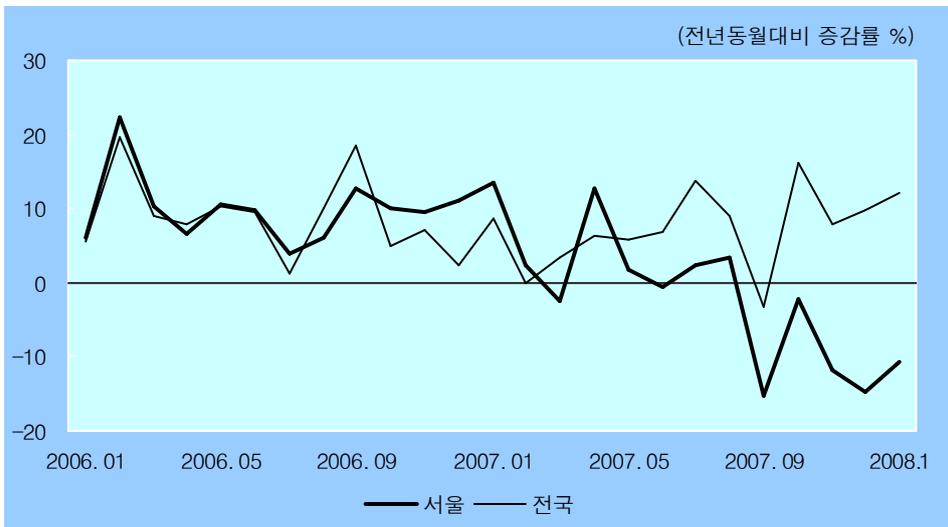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1월	9월	10월	11월	12월p	1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8.6 (0.6)	-3.0 (-1.9)	15.8 (15.2)	7.7 (-0.6)	9.6 (-3.8)	11.8 (2.7)
	서울 (제조업)	15.9 (-9.8)	-15.5 (0.1)	-2.6 (13.3)	-12.5 (-6.4)	-15.6 (-2.1)	-11.8 (-5.7)
	중공업	40.8 (-13.9)	-19.7 (-4.0)	-13.1 (17.2)	-24.2 (-9.1)	-27.2 (5.2)	-27.4 (-14.1)
	경공업	1.7 (-6.4)	-12.9 (2.8)	5.1 (10.9)	-3.6 (-4.8)	-5.8 (-6.3)	0.6 (-0.1)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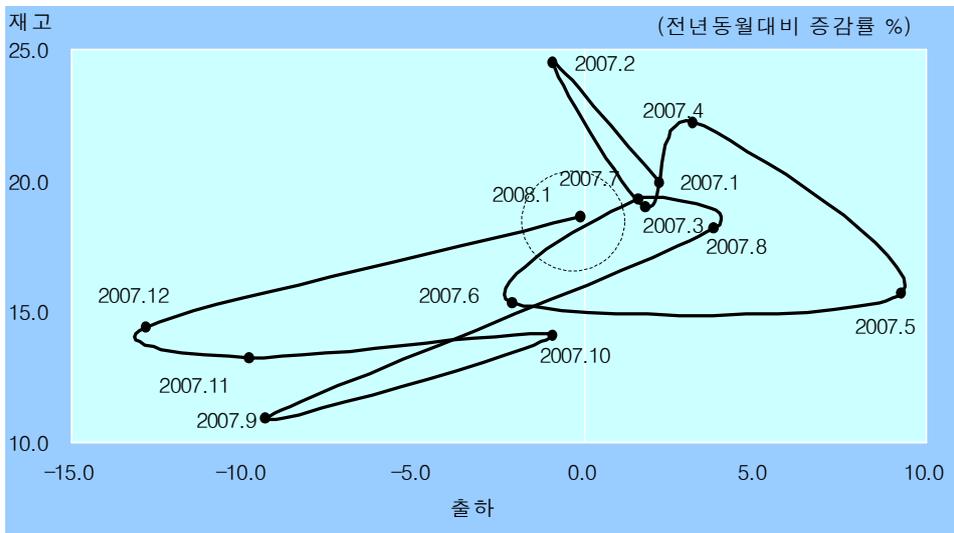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1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누증 단계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10.8(NSA, 2005=100)으로 전년 동월대비 0.1% 감소.
 - 총출하는 전년동월비 0.1% 감소했으나 전월비로는 2.3% 감소
 -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
 - 출하는 전년동월비 감소하고 재고는 전년동월비 증가하여 재고누증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상승

- 1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01.1%로 전월대비 3.3%p 상승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49.0%로, 전월 보다 8.4%p 하락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20.4% 상승한 147.5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1.9% 증가한 146.6%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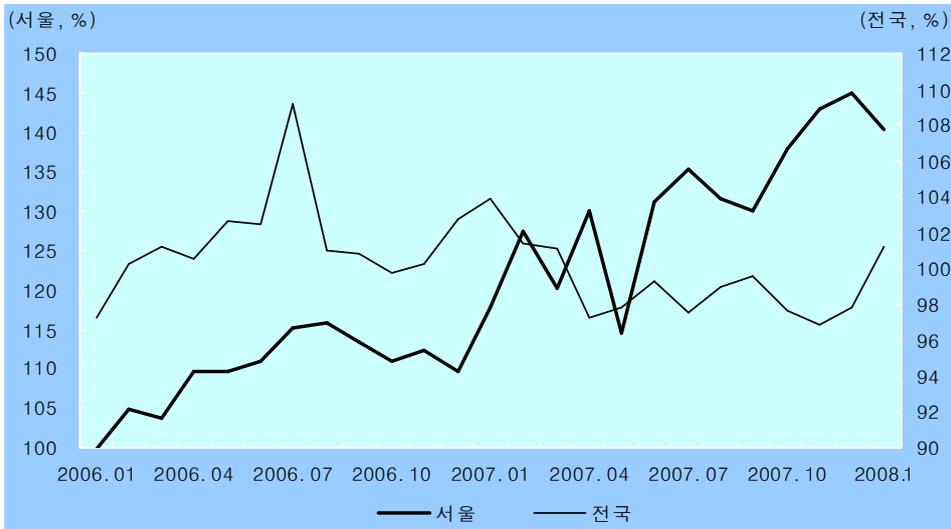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1월	9월	10월	11월	12월p	1월p	
재고율	103.9	99.6	97.7	96.8	97.9	101.1	3.3
서울	125.0	127.1	121.5	130.8	137.5	149.0	8.4
중공업	129.7	114.0	118.0	123.6	122.5	147.5	20.4
경공업	122.6	135.3	123.3	133.4	145.8	148.6	1.9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출하 원지수)×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1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대폭 증가

■ 전국 대형소매점 전년동월대비 판매액 증가

- 전월대비는 신차효과 영향으로 승용차에서 판매 호조를 보여 내구재 판매가 늘었으며, 설날 대비 수요증가를 보인 오락·취미용품, 전기·주방용품 등 준내구재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음
- 전년 동월대비로는 귀금속, 회초·선물용품 등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승용차, 비가공식품, 서적·문구, 화장품 등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대폭 증가

- 1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5264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21.7% 증가하여 대폭 증가함
- 백화점부문의 판매액은 경우 설 특수와 졸업·입학시즌으로 인한 의복, 신발, 가방 등의 판매액이 대폭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10.8% 증가한 8,033억원임
- 대형마트부문 또한 설특수와 입학시즌으로 인해 판매액이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36.7% 증가한 7,231억의 매출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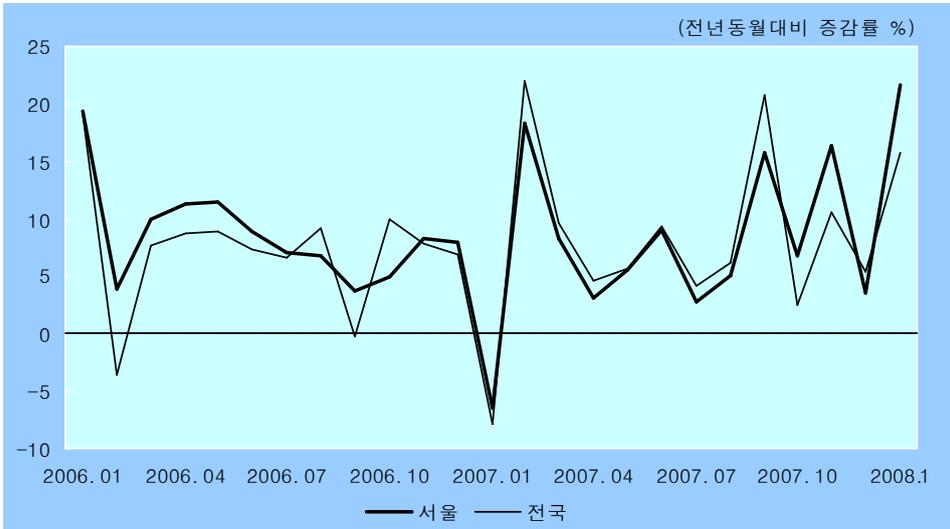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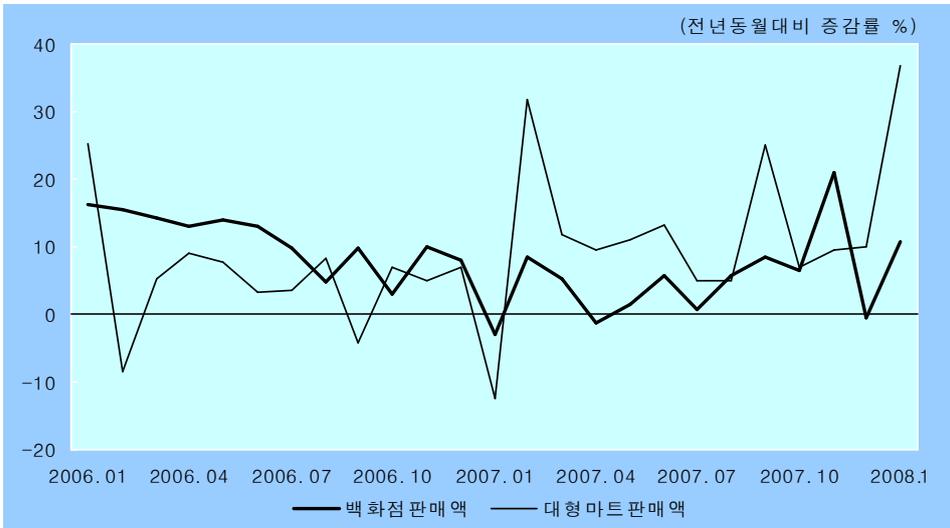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p
판매액	전국	3679.8 (-7.8)	4489.4 (20.7)	4090.1 (2.5)	4190.3 (10.5)	4600.4 (5.3)	4255.3 (15.7)
	서울	1253.9 (-6.5)	1459.0 (15.7)	1408.6 (6.8)	1486.2 (16.4)	1609.5 (3.5)	1526.4 (21.7)
	백화점	725.0 (-3.1)	773.5 (8.6)	833.6 (6.6)	908.5 (21.1)	961.4 (-0.5)	803.3 (10.8)
	대형마트 (할인점)	528.9 (-10.8)	685.6 (24.9)	575.0 (7.1)	577.6 (9.6)	648.1 (10.0)	723.1 (36.7)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2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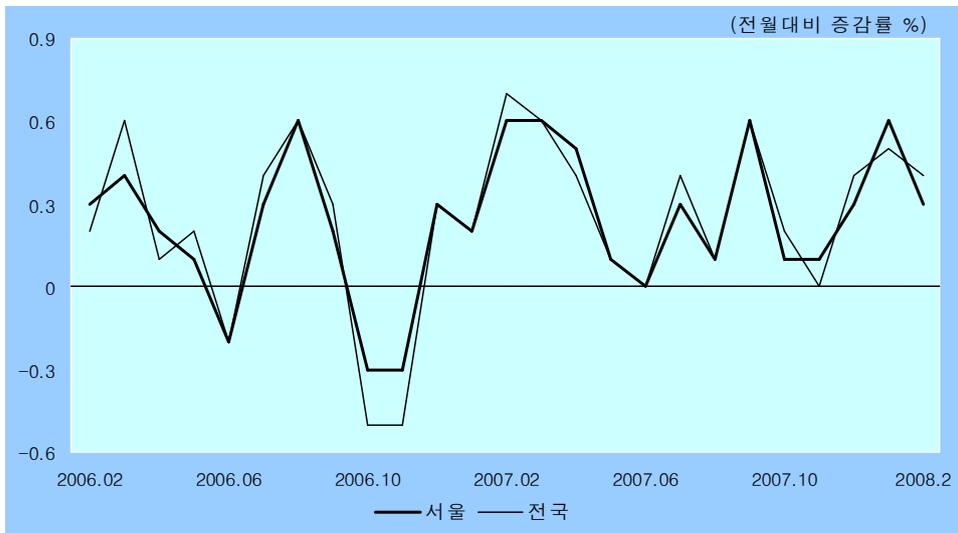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2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3.6%, 전년동기대비 3.7% 각각 상승함
 - 개인서비스, 농수산물, 공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상승함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3% 상승함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7.0(2005=100)으로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3.5% 각각 상승함
 - 비목별 동향으로는 농축수산물(전월대비 0.2%), 집세(전월대비 0.3%), 공공서비스(0.3%), 개인서비스(0.6%) 등이 상승하였으며 공업제품 중 석유류가 0.5% 하락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함
- **상품부문, 서비스 부문 모두 전월대비 상승**
 - 배추(-14.3%), 무(-11.9%), 딸기(-13.8%), 사과(-5.9%) 등 채소류(-1.1%)는 내렸으나, 귤(7.6%), 파망(25.7%), 감자(17.1%) 등 과실류(0.6%), 축산물(0.6%) 등이 상승해 농·축·수산물 전체적으로 0.2% 상승함
 - 공업제품은 두부, 금반지 등이 올랐으나, 경유, 남·여학생복 등이 내려 전월대비 0.0%(전국:0.1%) 포함, 전년동월대비 5.2%(전국:5.6%) 상승함
 - 집세는 전세, 월세 부문이 모두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2.5% 상승함
 - 공공서비스 부문은 행정수수료, 입원진료비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전국:0.4%) 상승, 전년동월대비 3.7%(전국:3.3%) 상승함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전국:0.3%), 전년동월대비 4.4%(전국:4.6%) 각각 상승함
 - 생선류, 채소류, 과실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0.2%(전국:1.3%) 하락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2.5%(전국:-1.6%) 하락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 월 비	전국	0.7 (2.2)	0.6 (2.3)	0.2 (3.0)	0.0 (3.5)	0.4 (3.6)	0.5 (3.9)	0.4 (3.6)	
	서울	0.6 (2.1)	0.6 (2.6)	0.1 (3.0)	0.1 (3.4)	0.3 (3.4)	0.6 (3.8)	0.3 (3.5)	
	상품 성질별	상품	1.1 (1.3)	1.3 (1.9)	0.3 (3.0)	0.0 (4.1)	0.5 (4.2)	0.8 (4.8)	0.1 (3.8)
		서비스	0.4 (2.5)	0.3 (3.0)	0.0 (2.9)	0.2 (3.1)	0.2 (3.1)	0.4 (3.2)	0.4 (3.2)
	생활물가	0.8 (2.2)	0.9 (3.2)	0.3 (3.9)	0.0 (4.7)	0.3 (3.4)	0.4 (4.9)	0.3 (4.4)	
	신선식품	6.8 (4.0)	8.9 (5.7)	1.3 (10.1)	-6.3 (10.7)	0.3 (3.4)	-1.5 (4.3)	-0.2 (-2.5)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제·활·동·인·구

2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소폭하락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보합

- 2월 전국의 15세이상 인구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1%(43만) 증가한 3,942만7천명이며, 경제활동인구는 16만7천명 증가한 2,370만3천명임
-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0.1%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으며 남자는 72.3%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하였고, 여자는 48.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함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소폭하락

- 2월 중 서울시 15세 이상 인구는 823만9천명으로 남자는 400만3천명 여자는 423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 0.7% 각각 증가함
- 경제활동인구는 508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한 61.8%이며 남자는 73.2%, 여자는 50.9%임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7 (-0.2)	1.0 (0.5)	0.9 (0.6)	1.0 (0.0)	0.9 (-2.0)	0.7 (-1.1)	0.7 (-0.1)	
	서울	-1.1 (-1.0)	1.2 (0.5)	0.5 (0.2)	0.2 (0.0)	-0.1 (-1.2)	-0.1 (0.0)	0.2 (-0.7)	
		남자	-0.4 (-0.2)	1.1 (-0.3)	0.4 (-0.2)	0.7 (0.2)	0.2 (-1.0)	0.0 (0.0)	-0.3 (-0.5)
			여자	-1.9 (-2.1)	1.4 (1.7)	0.5 (0.8)	-0.5 (-0.2)	-0.5 (-1.3)	-0.3 (0.0)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0.4	62.0	62.3	62.2	61.0	60.3	60.1
서울		62.1	63.1	63.1	63.1	62.3	62.2	61.8	
		남자	74.2	74.8	74.6	74.7	73.9	73.6	73.2
		여자	50.8	52.0	52.4	52.2	51.5	51.4	50.9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 · 업 · 자 |

2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비 소폭 상승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2월 전국의 취업자는 2,288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9%(21만명)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지속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8.4%(1,336만9천명), 여자는 41.6%(951만5천명)로 남자는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하고, 여자도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함
- 연령계층별로 보면 20대 이하는 감소한 반면, 30대 이상은 증가하였음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1만2천명, 4.3%), 전기·운수·통신·금융업(2만4천명, 1.0%)에서는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6만4천명, -4.6%), 도소매·음식숙박업(-2만9천명, -0.5%), 제조업(-2만3천명, -0.5%), 건설업(-1만2천명, -0.7%)에서는 감소하였음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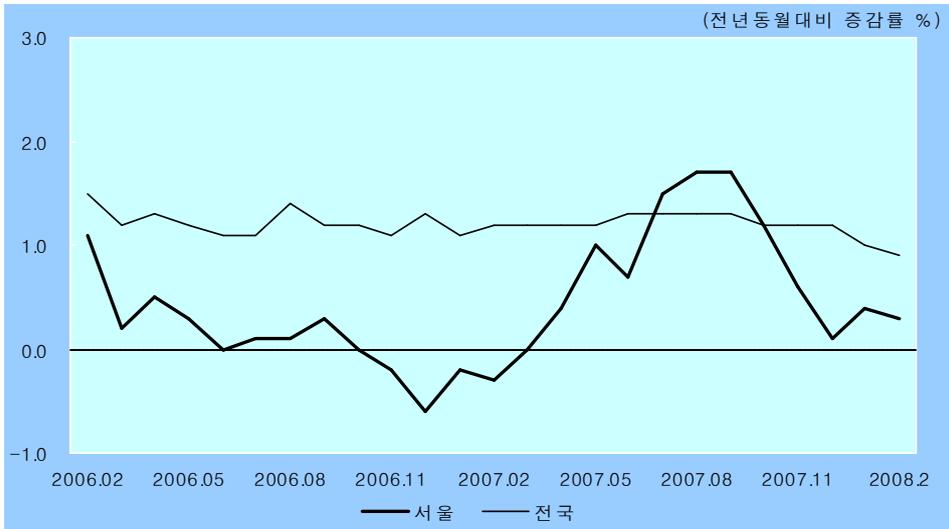
- 2월 서울의 취업자는 486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5천명(0.3%)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4만9천여명(-1.0%) 감소함
- 남자는 278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0.3%)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2만5천여명 감소해 전월대비 감소폭이 0.9% 감소로 지난 달의 감소폭보다(-0.2%) 확대됨
- 여자의 취업자는 207만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3천명(1.1%)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2만4천명(-1.1%)이 감소함
- 산업별로는 전년동월대비 건설업 1만6천명(4.0%),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1만6천명(3.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만5천명(2.5%), 도소매·음식숙박업 9천명(0.7%)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림어업 4천명(-69.4%), 제조업 6만7천명(-9.6%)이 각각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로는 건설업 1만2천명(3.0%)이 증가하였고, 농림어업 1천명(-32.1%), 제조업 2만9천명(-4.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만6천명(-1.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5천명(-0.8%), 도소매·음식숙박업 1천명(-0.1%)이 각각 감소하였음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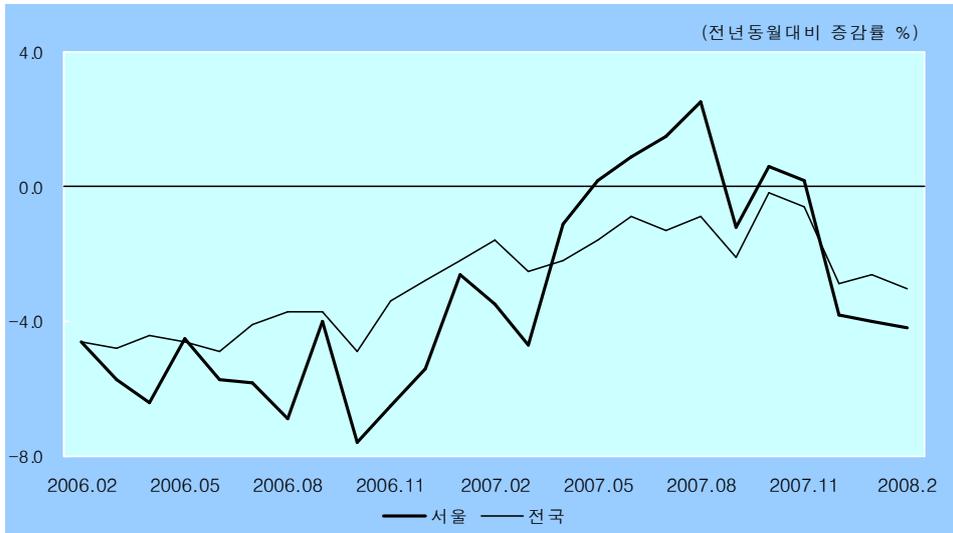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취업자	전국	1.2 (-0.2)	1.3 (0.7)	1.2 (0.5)	1.2 (0.0)	1.2 (-2)	1.0 (-1.3)	0.9 (-0.3)
	서울	-0.3 (-0.9)	1.7 (0.6)	1.2 (0.1)	0.6 (0.0)	0.1 (-1.3)	0.4 (-0.1)	0.3 (-1.0)
	남자	0.2 (0.5)	1.1 (-0.3)	1.2 (0.1)	1.4 (0.3)	0.9 (-1.2)	1.1 (-0.2)	-0.3 (-0.9)
	여자	-1.0 (-2.7)	2.5 (1.8)	1.3 (0.1)	-0.5 (-0.5)	-0.8 (-1.4)	-0.5 (0.1)	1.1 (-1.1)
	청년층 취업자	전국	-1.6 (-2.1)	-2.1 (-2.5)	-0.2 (1.3)	-0.6 (0.6)	-2.9 (-1.6)	-2.6 (2.5)
서울	-3.5 (-2.9)	-1.2 (-3.0)	0.6 (-0.5)	0.2 (1.0)	-3.8 (-3)	-4.0 (3.5)	-4.2 (-3.2)	
고령층 취업자	전국	6.4 (1.0)	5.0 (1.5)	2.6 (0.4)	2.0 (-2.1)	3.4 (-6.5)	3.0 (-4.3)	2.3 (0.4)
	서울	6.3 (-0.6)	10.7 (3.8)	2.5 (-2.1)	0.7 (-1.6)	-0.5 (-2.8)	1.3 (-0.1)	0.1 (-1.7)
	55-59세	-2.3 (-1.0)	5.9 (1.6)	5.4 (1.5)	2.7 (-1.3)	5.4 (-0.7)	7.2 (-0.5)	8.3 (0.0)
	60세 이상	13.8 (-0.2)	14.5 (5.4)	0.3 (-4.7)	-0.9 (-1.7)	-5.1 (-4.6)	-3.1 (-1.1)	-5.9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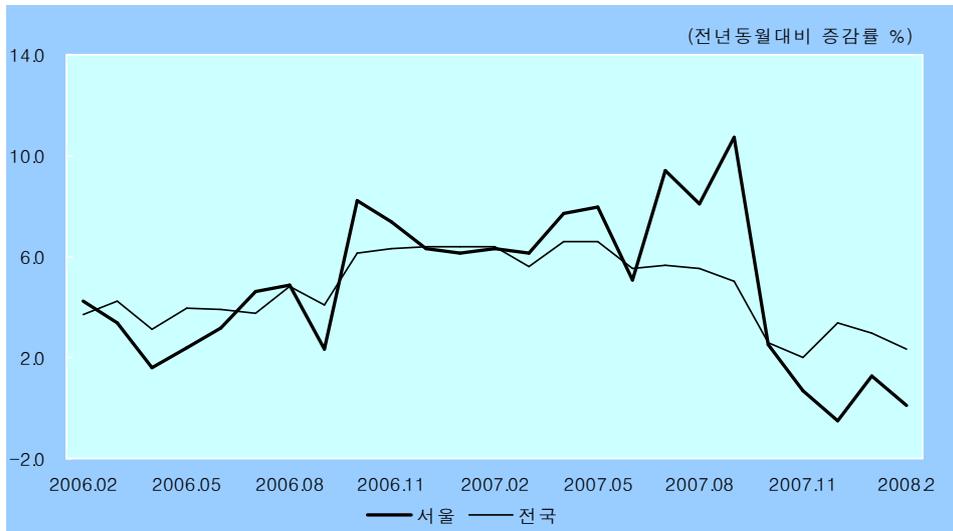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

- 2월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486만1천명)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8.7%)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28.3%), 제조업(13.0%),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3%), 건설업(8.6%)의 순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여 전월(4.1%) 보다 증가율이 감소하였으며, 이어 건설업(4.0%), 전기·운수·통신·금융업(3.0%), 사업·개인·공공서비스(2.5%), 도소매·음식숙박(0.3%)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 반면 제조업은 전년동월대비 9.6%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지난달(8.5%)에 비해 소폭 확대됨

■ 서비스·판매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 사무종사자는 증가

- 2월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년동월대비 서비스·판매종사자 6만5천명(5.5%),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만1천명(1.4%), 사무종사자 3천명(0.3%)이 각각 증가하였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천명(-38.7%),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7만2천명(-5.2%)이 각각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35.7%), 사무종사자 1만7천명(2.1%)이 각각 증가하였고, 전문·기술·행정관리자 3만7천명(-2.4%),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만6천명(-1.9%), 서비스·판매종사자 4천명(-0.3%)이 각각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

- 2월 서울시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 임금근로자는 126만4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59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 임금근로자는 2천명(0.2%), 임금근로자는 1만3천명(0.4%)이 각각 증가하였음
- 전체 취업자 중 비 임금근로자는 26.0%, 임금근로자는 74.0%로 나타났음
- 비 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동일하게 나타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천명(1.0%)이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6만7천명(3.7%)이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 2만명(-1.6%), 일용근로자 3만4천명(-6.4%)이 각각 감소하였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산업 별	· 제조업	-8.5 (-3.2)	-4.8 (3.5)	-8.0 (1.9)	-9.8 (-8.5)	-8 (0.2)	-8.5 (0.3)	-9.6 (-4.4)
	SOC 및 기타서비스업	1.2 (-0.5)	2.6 (-0.2)	3.1 (0.1)	2.5 (1.4)	1.6 (-1.5)	2.1 (-0.1)	2.1 (-0.5)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5.3 (0.2)	7.3 (-0.5)	8.2 (1.3)	4.5 (-0.7)	4.7 (-1)	4.1 (-0.4)	2.5 (-1.4)
	· 도소매·음식숙박	-3.4 (-2.0)	-4.7 (-0.9)	-5.5 (-1.4)	-3.5 (2.7)	-3 (2)	-1.3 (-0.7)	0.7 (-0.1)
	· 전기·운수·통신·금융	0.9 (-0.8)	6.3 (0.3)	7.1 (-0.3)	9.7 (6.6)	2.4 (-6.8)	3.0 (2.0)	3.0 (-0.8)
	· 건설업	0.2 (2.2)	2.9 (2.8)	5.0 (-0.1)	4.8 (0.5)	2.3 (-7.9)	3.1 (1.0)	4.0 (3.0)
직업 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4.1 (0.7)	6.0 (0.4)	5.8 (-0.8)	3.2 (-0.9)	6.8 (1.1)	4.6 (-0.5)	1.4 (-2.4)
	기능·기계작·조립·단종사자	-0.6 (-2.2)	0.6 (0.8)	-1.4 (0.9)	-2.1 (-2.5)	-2.5 (-3.9)	-2.5 (-0.2)	-5.2 (-1.9)
	서비스·판매종사자	-5.1 (-3.7)	-1.9 (-0.2)	-0.3 (0.8)	3.2 (4.8)	-2.5 (-2)	1.8 (0.2)	5.5 (-0.3)
	사무종사자	-0.6 (-2.2)	-0.2 (0.4)	0.3 (0.6)	-3.4 (-1.3)	-3.1 (-0.1)	-3.9 (0.6)	0.3 (2.1)
종사 상 지 위 별	임금근로자	1.8 (-1.0)	3.4 (1.1)	2.8 (0.3)	1.5 (-0.7)	1.6 (-1)	0.9 (0.6)	0.4 (-1.5)
	비임금근로자	-5.8 (-0.6)	-2.9 (-0.8)	-3.1 (-0.4)	-1.9 (1.9)	-3.8 (-2.1)	-0.8 (-1.9)	0.2 (0.4)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업·률 |

2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실업률 전월대비 소폭 상승

- 2008년 2월 실업자는 81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3천명(-4.9%)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3만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5천명(-6.1%) 감소하였고, 여자는 28만3천명으로 8천명(-2.7%)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9%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자는 2.9%로 0.1%p 하락하였음
- 계절조정 실업률은 3.0%로 전월대비 같았음
- 연령계층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40대와 60세이상에서 증가한 반면, 그 외 모든 연령계층에서는 감소하였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하락, 전월대비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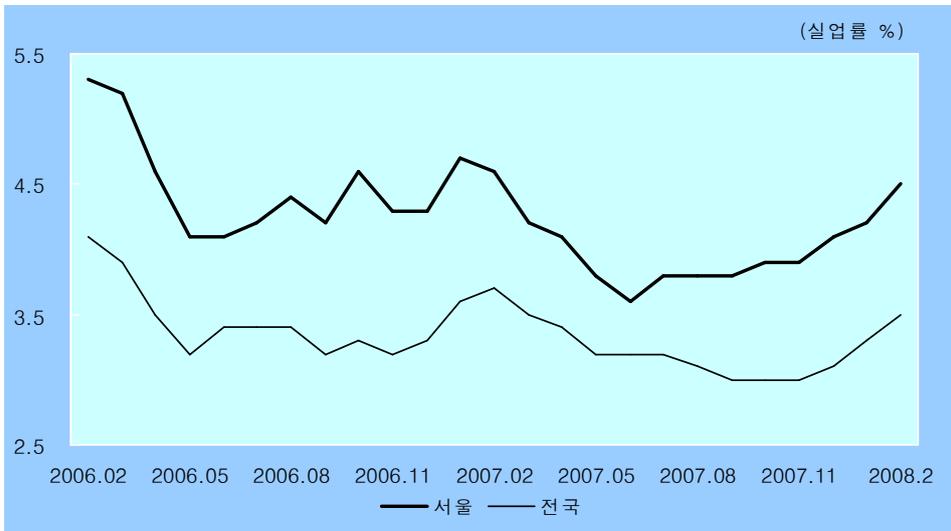
- 2월 중 서울의 실업자는 22만8천명,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3만명(-1.3%), 실업률 0.1% 각각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만6천명으로 0.3천명(-0.2%), 여자는 8만3천명으로 3천명(-3.4%) 각각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 실업자는 1만5천명(6.8%), 실업률은 0.3%포인트 각각 증가하였음
-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1만1천명(8.2%), 여자는 3천명(4.3%) 각각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자는 0.4%p, 여자는 0.2%p 각각 증가하였음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국	3.7	3.0	3.0	3.0	3.1	3.3	3.5	
서울	4.6	3.8	3.9	3.9	4.1	4.2	4.5	
성별	남자	5.0	4.6	4.3	4.2	4.4	4.6	5.0
	여자	4.0	2.7	3.3	3.6	3.7	3.6	3.8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설·경·기 |

2008년 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1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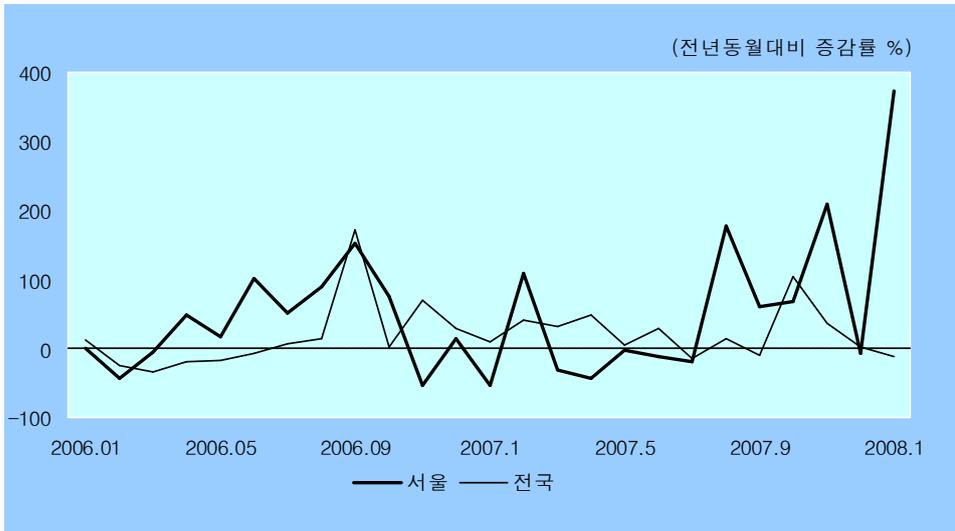
- 1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5조 5,704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3.1%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1조 9,97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73.9%가 증가하였음
(공공부문에서 103.8% 증가, 민간부문에서 395.6% 증가)
- 공공부문의 건설수주액 증가는 도로 및 문화시설 공사부문의 발주 증가가 원인이며, 민간부문은 신규 주택, 국제업무단지 및 재개발 주택 부문의 발주 증가를 원인으로 하고 있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35.9%를 차지하고 있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7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6,411.1	9,122	10,735	12,311	16,272	5,570	-13.1	-65.7	
서울	421.6	2,124	2,144	1,362	1,581	1,997	373.9	26.3	
발주 자별	공공	31.3	75.1	163.1	265.7	226.2	63	103.8	-72.1
	민간	390.2	1,983.8	1,967.9	657.9	1,349.6	1,933	395.6	43.2
공종 별	건축	407.7	2,119.6	2,086.3	917.9	1,479.3	1,953	379.1	32.0
	토목	13.6	3.3	54.0	442.3	96.6	43	222.6	-55.5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08년 2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2,919.6천m²로 전년동월대비 444.5% 증가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단독의 신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50.0% 증가하고, 아파트는 25,150.0% 증가하였으며, 연립은 전년동월대비 -96.9%로 하락하였음. 전체적으로 지난해 2월 대비 443.9% 증가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상업(2,343.8%), 문교 및 사회(79.1%), 기타(1,777.8%)가 증가하였고,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444.6% 증가함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m², %)

구 분	2007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서울	536.2	5,800.5	813.9	3,182.2	1,534.8	2,919.6	444.5	90.2	
주거용	소계	46.5	1,853.5	29.5	36.9	130.6	252.9	443.9	93.6
	단독	4.0	16.8	1.7	11.5	7.9	6.0	50.0	-24.1
	연립	41.4	109.4	20.6	16.7	89.7	1.3	-96.9	-98.6
	아파트	1.0	1,726.7	7.2	8.7	33.0	252.5	25,150.0	665.2
비주거용	소계	489.7	3,947.0	784.5	3,065.4	1,404.2	2,666.7	444.6	89.9
	상업	76.2	2,416.9	696.6	2,223.9	872.2	1,862.2	2,343.8	113.5
	공업	0	111.4	0.0	91.1	116.9	48.6	-	-58.4
	문교/사회	412.5	206.1	87.2	665.1	361.0	738.9	79.1	104.7
기타	0.9	1,212.1	0.6	85.2	54.1	16.9	1,777.8	-68.8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2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2월 기준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는 지속

- 2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3% 상승함으로서 상승폭이 전월의 수준을 유지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봄 이사철을 앞둔 계절적 수요 증가와 전반적인 매수심리 개선으로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0.3%)를 이어갔음

■ 2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서울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률인 0.7% 상승을 보인 가운데 강세를 보이던 강북지역(0.9%)이 전월(1.2%)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된 반면 강남지역(0.4%)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이사 수요 증가로 전월(0.4%)에 비해 상승률이 다소 확대됨
- 강북 지역에서는 전월에 이어 노원구(2.2%)와 은평구(1.2%)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북구(1.1%), 도봉구(1.0%)가 주요 상승지역에 해당됨
- 강남 지역에서는 구로구(1.4%)가 상업시설 유치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관악구(1.2%)가 도림천 복원사업 등 개발 기대감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월	1월	2월		
전국	98.1	100.3	100.6	2.5	
서울	96.6	100.7	101.4	4.8	
아파트	98.5	100.5	101.0	2.5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4.0	101.2	102.1	8.1
	강남	98.8	100.2	100.6	1.8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 강북 지역은 전월에 비해 주택매매가격이 0.9%가 상승하여 서울 전체 상승률(0.7%)를 상회하고 있음. 특히 강북 14개 구 중 5개 구가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 3개 구가 강북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9%)을 상회함
- 노원구(2.2%)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은평구(1.2%), 성북구(1.1%), 도봉구(1.0%), 용산구(0.9%)의 순서임
- 반면 마포구와 서대문구(0.5%), 광진구(0.4%), 중랑구(0.2%), 종로구와 성동구(0.1%)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함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 강남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구로구(1.4%), 관악구(1.2%), 동작구(0.8%)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구에서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7%)을 하회함
- 금천구(0.5%), 강서구(0.3%), 강남구(0.1%), 서초구(0.1%) 등이 서울 평균 매매가격을 하회하고 있고, 송파구와 양천구의 상승률은 0.0%로 나타남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유지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하였으며, 전월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음
- 강북은 1.0%, 강남은 0.1% 상승하여 지난달에 이어 강북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함
- 구별로 보면 노원구(2.4%), 강북구(1.2%), 서대문구(1.0%), 동대문구(0.8%), 성북구(0.7%), 금천구(0.7%), 도봉구(0.6%)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반면 광진구(0.0%)는 변동이 없고,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0.1%)는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1780만원) 이상인 구는 강남구(3513만원), 서초구(2746만원), 송파구(2523만원), 용산구(2481만원), 양천구(2068만원), 강동구(1907만원), 광진구(1857만원)임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은평구(979만원), 중랑구(969만원), 금천구(942만원)임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2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다소 확대

■ 2월 기준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은 다소 확대

- 2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0.2%)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확대된 0.3% 상승으로 조사됨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봄 이사철과 결혼 시즌을 앞둔 계절적 수요증가와 국지적인 재개발 이주 수요로 전세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

■ 2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다소 확대

- 2월 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폭을 확대시키고 있고, 강북 지역이 0.7%, 강남 지역이 0.4%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다소 확대된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음
- 강북 지역에서는 서대문구가 가재울뉴타운 이주 수요 증가로 인한 매물부족으로 1.4%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북구는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전세가 동반 상승으로 1.2% 상승함
- 강남 지역에서는 구로구가 단독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한 이사철 전세물량부족으로 1.1% 상승하고, 동작구는 노량진뉴타운 개발 등 재개발 이주수요 증가로 0.8% 상승함
- 주택유형별로는 연립주택은 0.9%, 단독주택은 0.8%, 아파트는 0.3% 상승하여 연립주택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월	1월	2월	
전국	98.1	100.2	100.4	2.3
서울	97.2	100.3	100.9	3.7
아파트	98.9	100.2	100.5	1.6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5.7	100.6	101.3	5.6
강남	98.7	100.1	100.5	1.8

주: 전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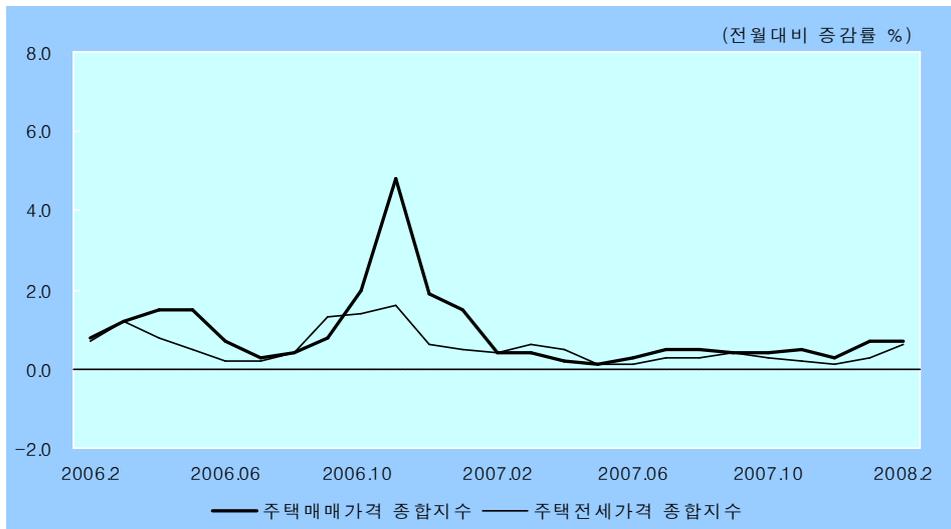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상승지역은 서대문구, 강북구, 구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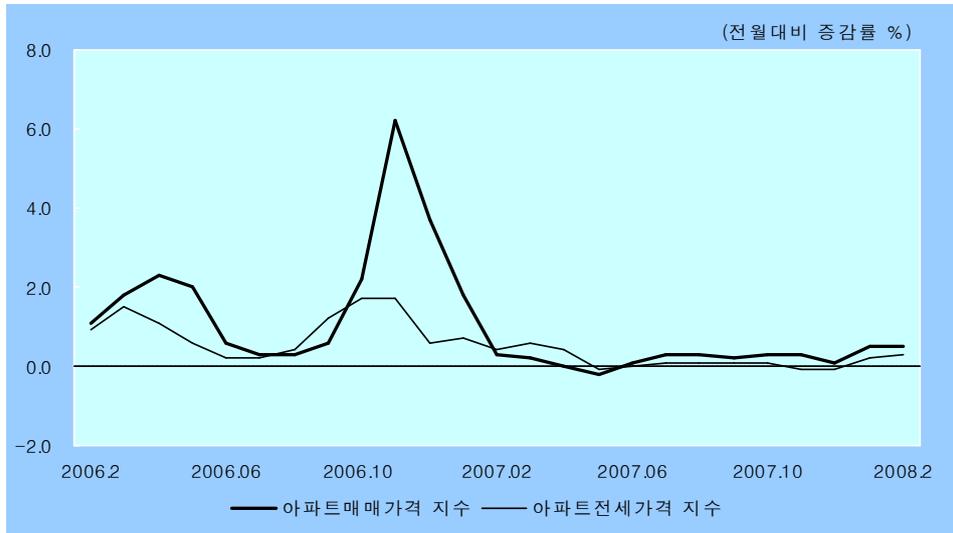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서대문구(1.4%)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강북구(1.2%), 구로구(1.1%), 마포구(1.0%), 성북구(0.9%), 동작구와 관악구(0.8%), 은평구와 종로구(0.8%), 노원구(0.6%)에서 서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0.5%)을 상회함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6년 12월 이후 45% 미만을 나타냄

- 2006년 12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3.8%로 전월 45.4%에서 1.6%p 하락하며 45% 수준을 하회하기 시작함
- 이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4.3%(2007년 2월)를 11.5%p 하회하는 42.8로 격차를 보이기 시작하고, 금월에는 12.1%p로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전국비율: 53.8%, 서울비율: 41.7%)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2월 국고채 유통수익률 콜금리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상당폭 하락
 -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인플레이션 우려 등 상승요인과 국내 정책금리 인하 기대 등 하락 요인이 교차하면서 일정 범위내에서 등락하다가 2월말 이후 美 국채수익률 급락의 영향으로 콜금리목표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08.1월말 5.04% → 2.4일 5.16% → 2월말 4.97% → 3.5일 4.92%)
- CD(91일) 유통수익률 큰 폭 하락
 - CD 유통수익률은 MMF 수신 호조, 발행 규모 둔화 등으로 전월(-32bp)에 이어 다시 큰 폭(-33bp) 하락(1월말 5.50% → 2월말 5.18% → 3.5일 5.17%)
- 2월 기준 장·단기 금리차 축소
 - 2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축소됨
- 2월 기준 KOSPI 지수 반등폭 축소
 - 2월중 KOSPI 지수는 저가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완만한 반등세를 이어 가다가 2월말 이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신용경색 위험이 재부각되면서 반등폭이 축소(1월말 1,625p → 2.28일 1,736p → 2월말 1,712p → 3.5일 1,677p)
- 2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규모는 모두 축소
 - 2월중 투자자별 동향은 외국인의 경우 전월에 이어 현물·선물 순매도를 지속하였으나 순매도 규모는 모두 축소
 -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크게 둔화
 - 기관투자자: 07.12월 +1.6조원 → 08.1월 +4.6조원 → 2월 +0.5조원
 - 개인투자자: 07.12월 +0.4조원 → 08.1월 +2.0조원 → 2월 +0.2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금 리	국고채(3년)	4.86	5.42	5.54	5.89	5.44	4.97	0.47
	CD(91일물)	4.94	5.34	5.43	5.73	5.81	5.18	0.63
	콜금리(1일)	4.55	5.00	5.00	4.99	4.99	4.97	0.02
	장·단기 금리차 ¹⁾	0.31	0.08	0.11	0.16	-0.37	0.00	-0.37
주 가	KOSPI ²⁾	1,417.3	2,004.6	1,924.8	1,908.6	1,732.3	1,689.5	42.8
	KOSDAQ ²⁾	600.9	801.5	755.7	722.3	667.1	647.4	19.7
환율 (W/US\$) ²⁾	941.8	915.9	917.0	930.2	942.4	944.7	-2.3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콜금리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로 전환

- 은행의 가계대출은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을 중심으로 증가로 반전(1월 -0.7조 원 → 2월 +2.3조원)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이 학자금대출 취급 및 설 연휴 전 카드사용대금 결제 등으로 1.5조원 증가
- 주택담보대출도 이사수요 등 계절 요인 등으로 개별대출이 증가하고 집단대출도 늘어나면서 0.8조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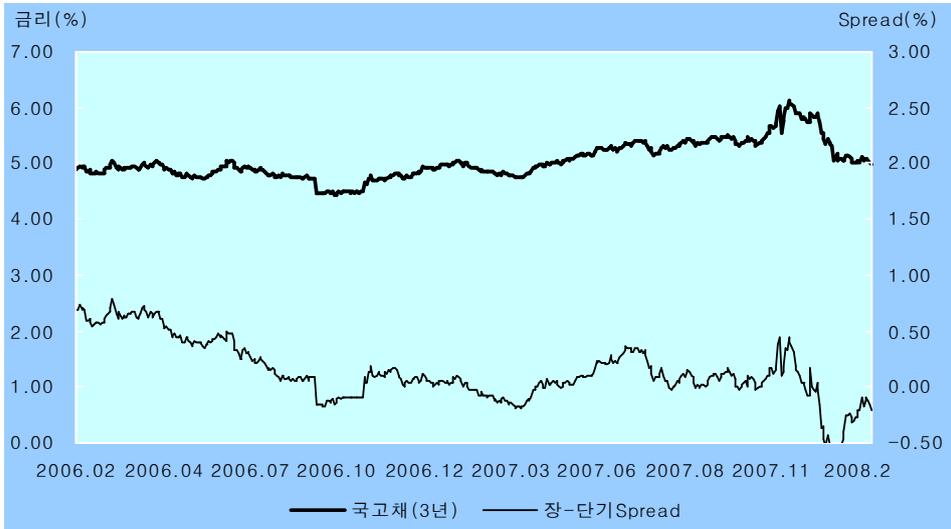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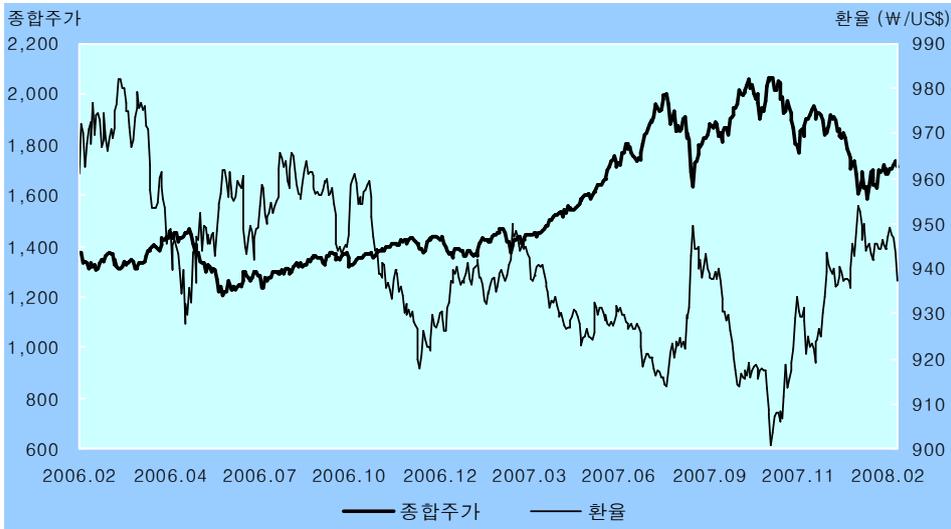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월말잔액		전 월비
	연중	10월	11월	12월	1월	2월	2008년	2008년	
							1월	2월	
가계대출 ¹⁾	17.8	3.9	3.3	-0.3	-0.7	2.3	362.8	365.1	-1.7
주택담보대출 ²⁾	4.6	1.1	1.6	-0.0	0.8	0.8	222.5	223.3	-0.4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3.0	2.8	1.7	-0.3	-1.5	1.5	138.5	139.9	-1.1

주: 1) 증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1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

- 1월말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073조 5,737억원으로, 전월대비 11조 9,250억원 증가함
- 1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31조 9,089억원이고, 전월대비 9조 2,722억원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액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예금은행	700,256.6	790,358.7	807,189.4	803,724.1	815,649.1	11,925.0
	비은행기관	219,504.2	249,303.4	252,825.7	255,148.6	257,924.6	2,776.0
	합계	919,760.8	1,039,662.1	1,060,015.1	1,058,872.7	1,073,573.7	14,701.0
서울	예금은행	289,422.6	333,662.8	343,211.3	343,162.9	350,225.9	7,063.0
	비은행기관	63,204.0	78,134.0	79,830.4	79,473.8	81,683.0	2,209.2
	합계	352,626.6	411,796.8	423,041.7	422,636.7	431,908.9	9,272.2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1월 기준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하락

- 1월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전월보다 0.5%p 하락한 58.6%를 기록함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7년					2008년	증감
	1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국	84.0	86.9	87.6	87.9	87.5	86.9	-0.6
서울	55.1	57.9	58.1	58.4	59.1	58.6	-0.5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 2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0.03%)보다 0.01%p 하락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86개로, 전월(193개) 보다 7개 감소하였음
- 업종별로 제조업과 건설업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업이 감소
제조업(64개→68개)과 건설업(37개→40개), 서비스업(85개→70개)로 나타남
- 형태별로는 개인사업자가 4개(58개→62개) 증가하였으나 법인이 11개(135→124개) 감소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 0.02% 보다 0.01%p 하락함
- 지역별로는 서울이 1개(67개→66개), 지방이 6개(126개→120개)로 각각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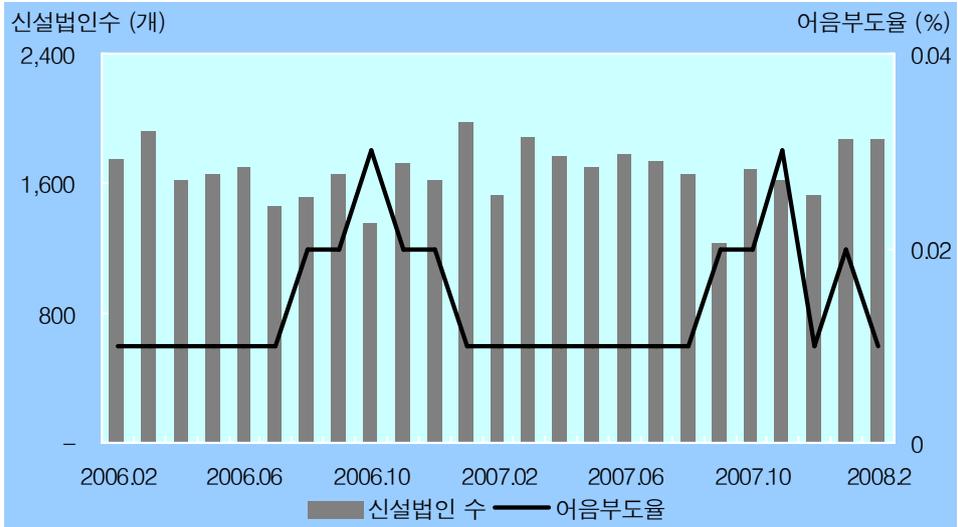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2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4	0.03	0.03	0.02	-0.01	-33.3	0.00	0.00
	부도업체 수	159	210	178	193	186	-7	-3.6	27	17.0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3	0.01	0.02	0.01	-0.01	-50.0	0.00	0.00
	부도업체 수	59	59	62	67	66	-1	-1.5	7	11.9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자료

자료: 한국은행



주: 신설법인 수는 중소기업청 공표시기가 3월말에서 4월초로 연기됨에 따라 본 호에서는 전월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용·보·증·동·향 |

신용보증 건수 및 금액의 대폭 증가

■ 보증 건수 및 금액 대폭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2월중 983건, 32,211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 64.7%, 금액 79.7% 증가함
- 설날 자금수요 증대로 인한 일반보증의 증가 등에 따라 보증 건수 및 금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전월 감소하였던 건당평균금액은 9.3%증가하여 32.8백만원을 나타냄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1,005	1,447	978	838	597	983	386	64.7	-22	-2.2
금액	33,485	28,455	31,304	26,479	17,926	32,211	14,285	79.7	-1,274	-3.8
건당평균금액	33.3	19.7	32.0	31.6	30.0	32.8	2.8	9.3	-0.5	-1.5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금액기준) 감소

- 2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제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전월과 비교하여 4.6%p 증가하여 16.3%를 나타낸 반면,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4.1%p, 6.3%p 감소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113	381	202	219	68	983
비율	11.5	38.8	20.5	22.3	6.9	100
금액	5,240	13,245	4,608	5,951	3,167	32,211
비율	16.3	41.1	14.3	18.5	9.8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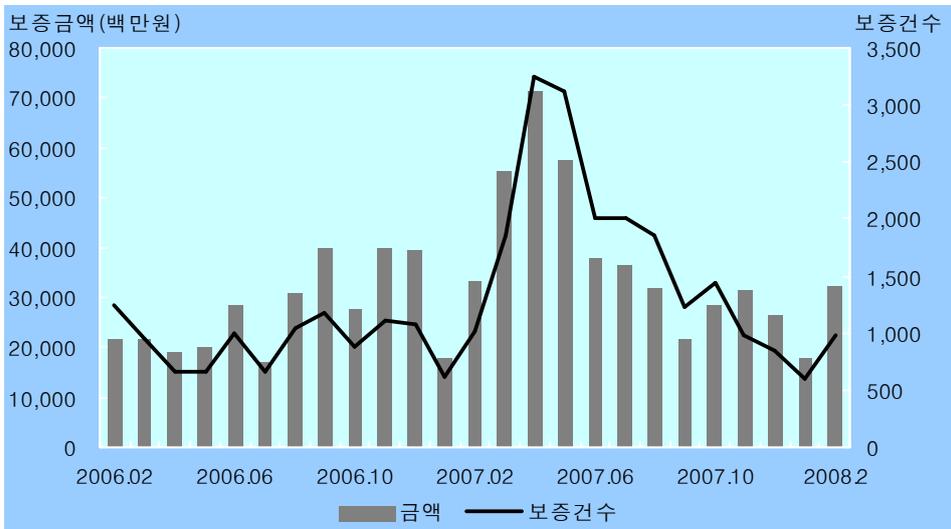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은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전월과 비교하여 11.4%p 감소하였으며, 반면 소기업의 비중이 7.9%p 증가하여 14.4%를 나타냄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7.12	2008.01	2008.02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735	556	901	345
	비율	87.7	93.1	91.7	-1.4
	금액	19,510	15,843	24,788	8,945
	비율	73.7	88.4	77.0	-11.4
소기업	건수	80	30	57	27
	비율	9.6	5.0	5.8	0.8
	금액	5,359	1,159	4,655	3,496
	비율	20.2	6.5	14.4	7.9
중기업	건수	23	11	25	14
	비율	2.7	1.9	2.5	0.6
	금액	1,610	924	2,768	1,844
	비율	6.1	5.1	8.6	3.5
합계	건수	838	597	983	386
	비율	100	100	100	0
	금액	26,479	17,926	32,211	14,285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 수출 및 수입 높은 증가세

■ 전국 수출 견실한 증가세

- 2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한 312억 달러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으로 석유 제품이 43.2% 증가하고 광물이 41.8% 증가하는 등 원료 및 연료(수출비중 8.7%)가 수출품목군 중 가장 높은 38.6%의 증가율을 기록함
- 경공업품(수출비중 7.5%)은 귀금속보석류 및 고무타이어·튜브가 각각 42.5%와 23.5%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23.3%의 증가율을 기록, 수출품목군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전국 수입 증가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 기록

- 2월 전국의 수입은 27.6% 증가한 324억 달러, 무역수지는 20.7억 달러가 감소한 12.5억 달러 적자를 기록
- 원자재(수입비중 61.4%)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등 에너지류 수입급증(62.8%)으로 전체적으로 39.3%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음
- 소비자재(수입비중 9.6%)는 가전제품이 76.0%, 곡물이 70.9%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17.5%의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월 기준 서울 수출은 높은 증가세 기록

- 2월 서울의 수출은 TV 등 전기·전자제품(수출비중 27.8%)과 기계류·정밀기기(수출비중 16.0%)가 각각 91.5%와 151.0% 증가한데 힘 입어 전국 시도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60.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 2월 기준 서울 수입도 크게 증가

- 서울은 반도체(10.7%)와 철강재(수입비중 7.1%)가 각각 약 3억 6,200만달러와 2억 5,800만달러 증가한데 힘 입어 전체적으로 16억 4,600만달러 수준의 큰 증가액을 기록하였음
- 전년동월(47억9천만달러) 대비 금월(64억 3천만달러)의 수입 증가율도 34.4%에 달해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2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6,273	29,319	34,444	35,837	33,030	32,323	31,157	4,884	18.6	-1,166	-3.6
	수입	25,233	27,144	32,654	33,707	33,896	36,109	32,406	7,173	28.4	-3,703	-10.3
서울	수출	1,845	2,104	2,438	2,515	2,299	2,905	2,934	1,089	59.0	29	1.0
	수입	4,803	5,234	6,416	6,409	6,528	7,380	6,437	1,634	34.0	-943	-12.8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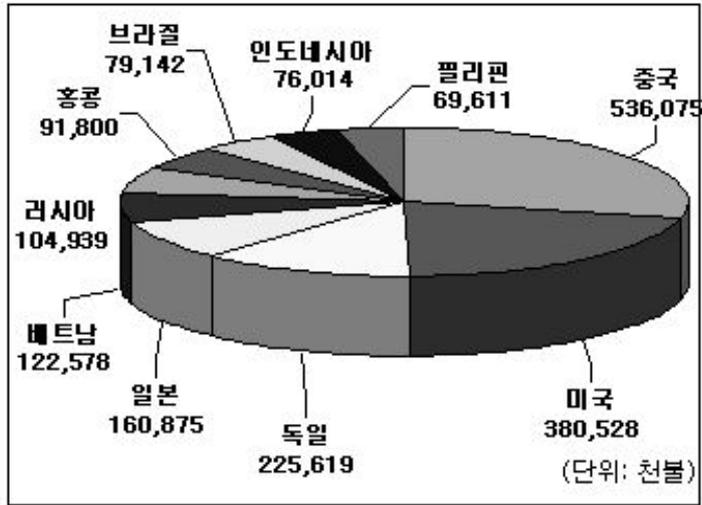
순위	품목명	2008년 2월		2007년 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그림	238,982	36,495.5	653	-64.3
2	무선통신기기	223,901	223.9	69,127	-20.5
3	반도체	160,252	29.7	123,571	-31.0
4	편직물	147,156	19.9	122,724	-31.2
5	섬유및화학기계	140,984	337.5	32,222	16.8
6	자동차부품	120,921	19.2	101,468	12.8
7	고무제품	112,711	16.6	96,646	5.4
8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104,087	2,484.8	4,027	-15.5
9	합성수지	101,516	18.7	85,532	0.6
10	가정용 회전기기	75,577	18,380.2	409	-10.3
	합계	1,426,087	58,026	636,379	-137.2

자료: 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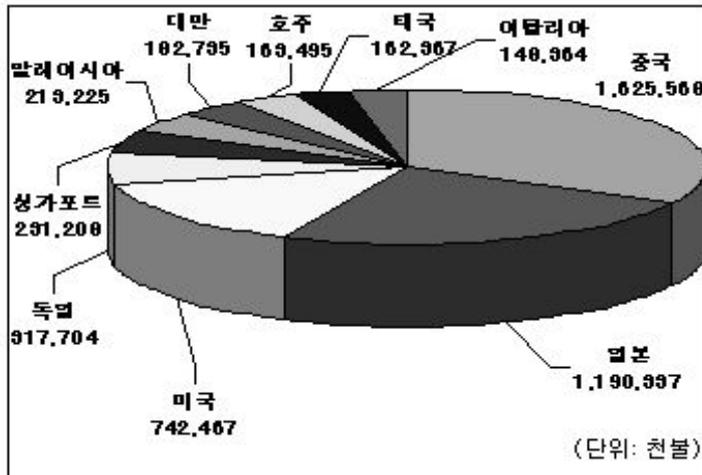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2월		2007년 2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689,737	110.4	327,796	-3.0
2	컴퓨터	453,193	32.8	341,330	-19.3
3	LPG	247,817	5,047,094.80	5.0	0
4	철강판	240,254	196.3	81,094	29.7
5	의류	222,552	-8.4	243,028	23.2
6	자동차	195,449	38.8	140,778	-37.6
7	석유제품	150,280	18.5	126,799	19.2
8	농약 및 의약품	130,665	70.1	76,825	14.1
9	무선통신기기	117,387	20.0	97,827	-22.8
10	기초유분	106,250	9.3	97,240	30.5
	합계	2,553,584	5,047,582.6	1,532,722	34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